

## 제품 '안전 감시망' 촘촘히 보강하자

기고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얼마 전 세계적 가구업체가 생산한 서랍장이 쓰러져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을 비롯 미국, 중국 등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했다. 또 스마트폰 배터리에서도 발화기 발생해 리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글로벌 기업 제품이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지만 출시 이후 새로운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의 출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등 유통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사전 인증 중심의 제품 안전관리만으로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다.

정부는 2010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사고 조사와 안전성 조사, 위해 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융복합 신제품 출시 속에서 독이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제품 시장 감시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제품 안전사고 발생 때 이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품 안전사고 실시간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 리콜정보, 병원·소방서 등



에서 입수된 정보, 뉴스·블로그 등을 통해 파악된 사고 정보를 고려한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급박한 경우 리콜 전이라도 소비

자에게 사용주의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발적 리콜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리콜 핸드북을 보급하고 교육·홍보와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될 경우 즉시 관계부처에 알리고 스스로 리콜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

신진국형 리콜 제품 회수시스템을 정착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리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안전관리 대상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60%가량이 수입품이다. 정부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고 정보 교환, 동시 리콜 등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품 시장감시망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국제무역의 필수 요소이자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이다. 기업·소비자·정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협업할 때 효과적인 제품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아이의 으뜸중기제품 아기연구소 일회용 침반이 '원데이빔스'

## 흡수·방수 4중 구조... 아이 '침똥' 걱정 덜었다

과거에는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천 기저귀를 쓰는 사람이 많았다. 끓는 물에 삶다 보니 위생적이라는 게 장점이었다. 순면이라 민감한 아기 피부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천 기저귀를 쓰는 집은 별로 없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기저귀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상욱 아기연구소 대표는 아기들에게 필요한 손수건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했다. 지난 2월 일회용 침반이 '원데이빔스'를 내놨다. 이 대표는 "매번 빨아야 하는 침 똥은 손수건을 일회용 침반이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아기가 물고 빨아도 '안전' 원데이빔스 모양은 유(U)자 형태다. U자 양 끝에 있는 양면테이프를 떼 뒤 아기의 양어깨 옷 위에 붙여주면 된다. 아기가 흘린 침은 침반이 위로 떨어진다. 이 대표는 "아기가 어린이집에 갈 때 한 장 붙여주면 하루 종일 침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침반이 침을 빨아들이는 흡수층, 흡수한 침이 아기 옷을 적시지 않도록 하는 방수층 등 4중 구조로 돼 있다. 이 대표는 "흡수 능력이 일반 손수건보다 30% 이상 뛰어나다"며 "흡수층 아래 방수층은 침이 다시 아기 옷으로 번지는 일을 막아준다"고 했다. 그는 "침이 옷에 과도하게 스며들며 아기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침똥' 염려도



이상욱 아기연구소 대표가 일회용 침반이 '원데이빔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욱 기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품이 들어간 모든 재료는 항균소재를 썼다. 국내 KC인증과 미국 CPSIA 인증(미국 출시를 위한 소비자 안전 인증)도 받았다. 아기가 언제든 물고 빨 수 있기 때문이다. 흡수층 방수층 등 각 소재를 붙이는 데는 접착제 대신 초음파 열접착 방식을 썼다. 이 대표는 "접착제를 쓰는 것보다

원가가 10배 이상 비싸지만 화학 접착제를 쓰지 않은 덕에 사외 문제가 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걱정을 없앴다"고 말했다. ◆미국 동남아 시장 먼저 집중 일회용 침반이 아이디어는 아기를 키우면서 얻었다. 이 대표는 "아기가 침을 흘릴 때마다 매번 닦아주는 게 번거로운데 다 손수건 뉘기도 귀찮아 떠올린 아이디어

라고 말했다. 기저귀나 생리대처럼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해 4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을 다 헤매도 원하는 재료를 찾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휴지 생리대 같은 일회용 위생용품만 만드는 기업 중 작은 기업이 없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다. 부직포 등 원자재도 수백kg의 대용량(롤)으로만 나왔다. 주변에는 일회용 침반이 시장 자체가 아예 없다며 사업을 말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 대표는 "내가 개척한 시장이 곧 블루오션이란 생각으로 버티며 사업하고 있다"고 했다.

원재료의 답은 그가 지난해 입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찾았다. 입교 동기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니 국내 위생용품 기업의 협력을 알게 됐다.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아기연구소는 출생률 낮은 한국 대신 해외 시장을 먼저 노릴 계획이다. 미국에는 지난해 10월 현지 법인을 열고 최대 크라우딩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통해 홍보와 판매를 시작했다. 동남아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2000만 명 중 재력이 풍부한 상위층 3%만 해도 60만 명"이라며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이어 국내 시장도 노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idol@hankyung.com

포기없는 혁신기업의 꿈,  
KB와 손잡고 날아오른다

수많은 젊은 도전이 불가능에 그치지 않도록 열정 가득한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의 꿈, KB와 함께 어부다]** Dreaming Idea  
**KB Dream's Coming Project**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창업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 50인 혁신기업 지원 펀드를 1,500억원 조성하고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50+40창업지원펀드를 확대 운영하여 혁신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창업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 50인 혁신기업 지원 펀드를 1,500억원 조성하고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50+40창업지원펀드를 확대 운영하여 혁신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이스타트업(I-STARTUP) 2018' 행사에서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오른쪽 세 번째)과 구영모 인천시 일자리기획관(첫 번째) 등이 모바일 드론 제어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 '성공 경험 나누자'... 창업 멘토-멘티 인천서 뭉쳤다

송도서 인천벤처창업한미당 휴엔텍 등 5곳 '창업스타' 선정

인천청조경제혁신센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등 23개 창업지원 기관이 참가한 인천 지역 최대 창업 축제인 '아이스타트업(I-STARTUP) 2018 인천벤처창업한미당'이 22일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인천 대표 벤처기업들이 참가해 예비 창업가들과 창업 정보를 공유했다. 토크콘서트·잡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 30여 개가 설치됐다. 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손거울과 실내용을 직접 만들어 참가한 김민서 군(서귀중 3학년)은 "친구들

과 함께 만든 제품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는 게 두렵기도 했으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긴장감이 사라졌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신제품을 생산해 창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부스가 설치됐으며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렸다. 우수창업기업들의 성공비결 공개, 선배 창업자들과 경험담을 나누는 청년창업토크콘서트, 조승연 작가의 잡콘서트 등 예비창업가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 7년 이내에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에너지컨설팅, 휴엔텍, 진성하이테크놀로지, 셀텍, 아들과 딸 등 5개 벤처기업이 창업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인천에서 고용을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열외수 환기장치를 개발한 휴엔텍은

2014년 회사 설립 후 4년 만에 매출 117억원을 달성했다. 정명도 휴엔텍 대표는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시스템이 성장의 동력"이라며 "인천시나 인천중소벤처기업청에서 스타기업으로 인정해 줬지만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휴엔텍과 진성하이테크놀로지, 셀텍이 기업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은 김하늘 인하대 니저, 이승연 미래서비스 대표가 선정됐다. 우수창업기업·기관 22곳과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지원기관 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박선국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기술력 있는 기업을 계속 발굴·지원해 내년 행사에서는 스타기업을 1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원 기자 jeffkang@hankyung.com



윌리엄스 소노마 '크리스마스 컬렉션' 현대리브트는 미국 윌리엄스 소노마의 '트와이즈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선보인다. 50여 개 식기류에 산타클로스, 트리 등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22일 서울 현대백화점 영구점본점 매장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리브트 제공

**NEW** 새로 나왔어요

**신일 초음파 가슴기**

생활가전업체 신일산업은 22일 초음파 가슴기 신제품을 내놨다. 이 제품은 가슴기에 디퓨저와 무드등 기능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물이 담긴 수조에 아로마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향기가 퍼진다. 일곱 가지 색상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램프를 탑재해 무드등이나 수유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이 부족하면 전원이 꺼진다. 가격은 3만5000원.